

강진군, 고령 농업인 농기계 사고 예방 교육 강화

최근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고령 농업인의 농기계 조작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진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가 농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 장비 출고 시 현장 안전교육을 상시 의무화하고, 오는 7월부터 순회안전교육 추진한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안전보건 중앙 DB센터 및 관계 기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3,257건에 달한다. 특히 2024년 기준 농작업 사망 재해의 73.4%가 '70대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고 원인 역시 기계 전복·전도(27.6%)와 떨어짐(19.5%) 등 상당수가 기기 조작 미숙과 숙련도 부족, 고령으로 인한 인지 및 반응 속

도 저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임대사업소는 별도의 교육 일정을 조율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상시 모든 임대 장비가 출고될 때마다 현장에서 즉시 '작동법 및 안전 운행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계 조작이 서툰 고령 농업인들이 장비를 인도받는 그 자리에서 충분히 실습하고 안전 수칙을 몸으로 숙지한 후 출고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여 일상 속 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7월부터 농업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순회안전교육'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안전 운행 요령뿐만 아니라, 무더위 속 농업인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집중적으로 전파할 방침이다. /전문기자



농기계 작동하는 사진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군, 감정마을 찾아가는 행복버스 봉사

무안군에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가 29일 해제면 감정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사업은 전남사회서비스원과 무안군자원봉사센터가 협력해 교통과 복지환경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감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과 스트레스 검사 등 건강검진을 비롯해 키오스크 교육, 이·미용, 안마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무안경찰서의 보이스포싱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서비스를 이용한 한 어르신은 "마을로 직접 찾아가 봉사자들이 친절하게 염색도 해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용운기자

민형배·강성희, 목포서 집중유세 열고 결집 나서



울동단과 함께 유세 열기를 높이는 현장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와 강성희 목포시장 후보가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30일 오후 용해동 포미타운 올리브 영 앞에서 합동 집중유세를 열고 주말 막판 표심 결집에 나섰다.

이날 유세에는 김원이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이 함께했으며,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지지자들은 두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며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민형배 후보의 '시너지 유세단'

과 강성희 후보 울동단도 울동을 통해 유세 열기를 끌어올렸다.

강성희 후보는 "용해동과 포미타운은 저에게 정치적 출발점이자 힘이 되어준 고마운 지역"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재선 전남도원으로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민형배 후보는 "목포 발전을 위한 두 가지 요청 사항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성태기자

"작은 용기가 만드는 큰 기적"...함평군, 사랑의 헌혈 행사 성료

전남 함평군이 혈액 수급 안정화를 돕고 헌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열고 따뜻한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함평군은 "지난 29일 군청과 보건소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실시한 '사랑의 헌혈'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헌혈 행사는 저출산과 고령

화 등으로 헌혈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혈액 수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혈액 확보를 돕고 자발적인 헌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총 41명의 함평군민과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대한적십자사 헌혈 버스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됐다. 헌혈 참여자

들에게는 혈압·혈액 검사 등 기본적인 건강 상태 확인 서비스가 제공됐다.

심화섭 함평군 보건소장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가까이 동참해 주신 군민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다"며 "헌혈 문화 확산과 생명 존중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기자

신안군, 퍼플섬! 라벤더꽃 보러 방문객들로 가득!

신안군은 라벤더축제 기간인 지난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 동안 퍼플섬에 5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5월 24일(일)에는 퍼플섬 개장 이후 하루 역대 최다 인원인 11,081명이 방문했고, 축제 기간으로 보면 퍼플섬 전체 인구 130여 명의 400배 가까운 인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특히 올해는 4~5월 아침저녁 저온현상으로 개화가 늦어져 만개한 라벤더를 볼 수 없었지만, 수많은 방문객의 호응에 힘입어 앞으로 2주간 라벤더 정원을 개방하여 라벤더꽃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퍼플교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반월도에서는 오는 6월 12일부터 '버들마편초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성태기자

영암군, 전남 최초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입주자 모집

영암군이 농어촌 의료·복지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성한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숙사는 지난 2022년 전남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영암읍 동무리에 지상 4층, 30실 규모로 건립됐다. 전남 최초로 조성된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전용 기숙사다.

기숙사는 교대근무가 많은 간호사의 근무 형태를 고려해 1인 1실 형태로 운영된다. 각 호실에는 옷장과 신발장,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 생활 가전과 가구를 갖춰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주 대상은 영암군 소재 민간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

사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보증금 50만원, 월 임대료 15만원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세부 선발 기준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해 오는 6월 15일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문수기자

가고싶은 여름도시티 **장성호 수변길**

영암군출장근로대위

수변 데크길(왼쪽)

황금빛출장근로대위

수변 데크길(오른쪽)

영로우 시티 Jangseong 장성군